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맷돌을 모티브로 한 원의 조형성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전공)

오 수 향

2009년 6월

석사학위논문

맷돌을 모티브로 한 원의 조형성 연구

지도교수 허 민 자

오 수 향

이 논문을 디자인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오수향의 디자인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광진



위 원

허민자



위 원

박현영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년 6월

<English Abstract>

A Study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 Circle Using Millstones as Motiv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Majored in Craft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Oh Su-Hyang

Leading Professor Huh Min-Ja

The circular shape of geometric features is inspired and abstracted from Jeju's folklore tool, 'millstones', which poses a perfect symmetry. The circular geometry, by itself, creates spatial sense and completeness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ildness and simplicity. Yet, it is also a dynamic shape that makes one feel ceaseless movement. The circular shape offers spiritu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that appeal to the heart of people's minds as having the senses of stability and chang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ircle has symbolized wholeness, completeness, and endlessness, having the dynamic image that expresses the life cycle of unknown points of starting and ending. Therefore, the research aims to explore an artistic sense and express an inspiration by study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 circle that has visual excellence and symbolizes transcending harmony with eternity.

Circular shapes were either created from Jeju's traditional millstones by cutting or overlapping them or displaying them in parallel, expressing and recomposing them in a form of artwork embracing both traditional and modern senses. The work also aims to add the significance of harmonized and coexistent living, by the use of clay figures to represent the people of Jeju, who have endured together the rigors and hardships of their lives.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작품제작 배경	3
1. 기하학적 형태의 일반적 의미	3
2. 원의 도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 고찰	5
1) 원의 형태적 개념	5
2) 원의 조형적 특징	7
3) 원의 상징적 의미	9
4) 원을 주제로 한 조형 예술의 변천과 작품 연구	12
3. 제주의 풍토적 문화 속에 나타난 맷돌의 조형성	25
1) 제주의 풍토와 문화적 특성	25
2) 제주 맷돌의 조형적 특성	27
III. 작품제작 및 설명	31
1. 제작 의도 및 방법	31
2. 작품 설명	33
IV. 결론	51
참고문헌	52

그 립 목 차

<그림 1> 만다라	11
<그림 2> 태극	11
<그림 3> 만월(滿月)의 원	11
<그림 4> 랭스대성당의 장미창	11
<그림 5> 고대 기독교 그려진 성화	12
<그림 6> 판테온의 신전 입면도	15
<그림 7> 판테온 신전 평면도	15
<그림 8> 피렌치대성당의 돔	15
<그림 9> 석굴암	15
<그림 10>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15
<그림 11>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나선형구조	15
<그림 12>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16
<그림 13>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16
<그림 14> 스페인 발렌시아의 예술과 과학의 종합 단지 야경	16
<그림 15> 원불교 묘사그림	17
<그림 16> 자크 루이 다비드, 사빈느 여인의 약탈	17
<그림 17> 로버트 들로네, 삶의 기쁨(Joie de Vivre)	18
<그림 18> 로버트 들로네, 원형(Circular Forms)	18
<그림 19> 칸딘스키, 여러 개의 원(Several Circles)	19
<그림 20> 칸딘스키, 원 속의 원(Circles in circles)	19
<그림 21> 파울 클레, 성곽과 태양(Castle and Sun)	19
<그림 22> 김환기, 여름달밤	19
<그림 23> 정해숙, 투영	19

<그림 24> 파이스토 원반	20
<그림 25> 당나라 청동거울의 배면	20
<그림 26> 알렉산더 로드체코, 매달려 있는 구조물(Hanging Construction) ·	22
<그림 27> 나이젤 홀, 코튼 강(Stretched+Compressed)	22
<그림 28> 주후식, 공간(space)	23
<그림 29> 김여름, 물구나무서기	23
<그림 30> 박은선, 무한기둥-접속Ⅲ-공간	23
<그림 31> 나용태, 씨앗의 발아	23
<그림 32> 나용태, 만다라	23
<그림 33> 이혁진, 원형 공간(Circle Space)	23
<그림 34> 보딜 만츠, 건축적 부피(The Architectural Volume)	24
<그림 35> 타케무라 유리, 수다스런 그릇(Talkative Bowl)	24
<그림 36> 마크 루솔드, 우주의 반구(Kosmos Hemisphere)	24
<그림 37> 제주초가와 돌담길	27
<그림 38> 돌하르방	27
<그림 39> 마을 사람들의 함께 모여 멧돌질하는 모습	29
<그림 40> 방앗간에서 연자매 돌리는 모습	29
<그림 41> 멧돌(정래)	29
<그림 42> 연자방아(몰방애)	30
<그림 43> 풀래	30

작 품 목 차

<작품 I> 상생 - 어우러짐 / 30cm×40cm×14cm	33
<작품 II> 상생 - 어우러짐 / 30cm×40cm×14cm	35
<작품 III> 상생 - 어우러짐 / 25cm×65cm×12cm	37
<작품 IV> 상생 - 어우러짐 / 80cm×30cm×18cm	39
<작품 V> 상생 - 어우러짐 / 38cm×38cm×12cm	41
<작품 VI> 상생 - 어우러짐 / 40cm×35cm×12cm	43
<작품 VII> 상생 - 어우러짐 / 40cm×38cm×12cm	45
<작품 VIII> 상생 - 어우러짐 / 33cm×39cm×18cm	47
<작품 IX> 상생 - 어우러짐 / 27cm×37cm×14cm	49

I. 서 론

1. 연구목적

현대 미술은 전통적인 양식에서 탈피하여 작가의 주관과 개성에 의해 예술의 범주를 다양하게 확장시켰고 복잡한 생활구조 속에서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를 기하학적 선을 사용함으로써 합리성과 단순성, 간결성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기하학적인 형태 중 기본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원(圓)형은 시각적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간결하고 함축된 조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작가의 창조적 소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에 내재된 조형적 특징과 상징적 이미지는 인간의 기본 감성에 적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하학적인 원의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 대칭형으로 그 자체로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하며, 곡선의 부드러움과 단순성을 갖고 있고 무한한 움직임의 느끼게 하는 동적(動的) 형태이다. 또한 원은 안정감과 변화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형태로서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정신적, 심리적 작용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의 형태적 특징은 전체성, 완전성, 영원성을 상징해 왔고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의 순환 체계를 표현하는 동적인 이미지를 갖는다.¹⁾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시각적 우수함을 지니고 있고 시대성을 초월하여 영원과의 화합을 상징하는 원의 형태를 제주 민구인 맷돌의 원형과 부합시켜 조형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생명감을 부여하는 토우를 접목시켜 척박한 환경과 고난, 역경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삶을 이어온 제주인의 모습을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맷돌에서 표현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였다.

1)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 세상, 2000, p. 28~32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통성과 현대적 시각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고 원의 상징성과 미적 감각을 탐구하며, 내면적 심상과의 통로를 이루도록 하여 영원과 화합을 상징하는 원의 이미지와 조형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의 풍토와 토착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주의 민구인 '맷돌'에서 원의 형태를 추출하여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조형화 하고 이에 토우를 접목시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원의 조형성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적형태의 개념에 대한 의미와 원의 도형적 성질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제주 문화의 형성과정과 풍토적 특징을 알아보고 제주민구인 맷돌의 조형성을 고찰한다.

셋째, 제주민구인 맷돌의 형태에서 원을 추출하여 절단, 병렬, 중첩 등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내포한 조형물로 변환시킨다.

넷째, 소지는 성형강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토를 사용하고 성형방법으로는 판성형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의 고유한 현무암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표면을 돌조각을 이용하여 찍어 내고, 조형물에 토우를 적절히 접목시킴으로써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II. 작품제작 배경

1. 기하학적 형태의 일반적 의미

기하학적 형태는 선사시대부터 상징적 표현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왔으나 의식적으로 조형예술의 창조 활동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기하학적 형태란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고 대상과는 무관하게 순수 조형요소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단순화된 형태들을 말한다.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수학적 측면에서 논리적인 미의식으로 창조한 가장 단순화되고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칙적이며 단순 명료한 감각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가 취하는 근본 입장은 자연의 형태에서 파생되었으나,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인공적 형태의 특징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나 도구 등을 통하여 기하학적 형태가 갖는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풍부한 자연을 단순하게 구성하기 위한 형태의 합리화, 간략화 즉, 체계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이지적(理智的)인 사고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의 은유적 형태 또는 정제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물에 대한 새로운 조형의 기능성과 자연물의 재구성을 통하여 디자인과 관계되는 조형언어를 적극적으로 추출한 합리적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형태의 모방이나 재현도 아니요, 자연물을 간결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차원적 평면인 점, 선, 면을 기본으로 하여 삼차원의 입체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복잡한 자연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인위적인 추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²⁾

기하학적 형태는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이며 수리적이고, 복제품이 가능한 형태로 객관화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함과 일정한 법칙의 구

2)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서울 : 미진사, 1980), p.87

성은 안정감과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시각적 효과를 뛰어나게 한다. 그리고 형태와 형태를 합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합성의 경우도 매우 편리하다.

기하학적 형태가 생성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 세잔느(Paul Cezanne)³⁾는 모든 사물이 구형, 원기둥, 원추 형태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작품 속에는 자연의 형태가 단순하게 처리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세잔느 이후의 현대 미술에서도 기하학적 감성이 특별한 호소력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허버트리드(Herbet Read)는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모든 기하학적인 미술의 기호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하였다.

이렇듯 원은 기하학적 형태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대조형 예술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형표현에 있어서 원에서 느낄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의 특징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적 형태는 일체의 장식성을 배제한 가장 단순한 요소로 환원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 명쾌한 느낌을 주며, 그 간결함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전달이 빠른 조형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함이 동반하는 기하학적 기본형에 변용을 가하면 그 느낌은 급속히 변해간다.

둘째, 기하학적 형태는 순수한 형태인 원(Circle), 삼각형(Triangle), 사각형(Square)등으로 규칙적이며, 단순 명료한 형태로서 컴퍼스나 자로 그려질 수 있고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형태이다. 과거의 조형 예술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기계적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예술은 기계적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 등이 예술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기하학적 형태는 매우 합리적인 형태이다. 특히 형태상의 합리성은 재료, 가공 및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되며 공예와 공업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형태의 발전과 구성에 관한 관점에서 본 경우, 즉 형과 형을 합하여

3) 세잔느(Paul Cezanne)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작가. 근대회화의 아버지, 「목맨 사람의 집」(1872)이 그의 전기 작품(인상파) 중에 손꼽히는 걸작이며, 「에스타크」,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 등 다수가 있다.

새로운 형을 만드는 형태합성의 경우에도 기하학적 형태는 매우 편리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사용된다.

넷째, 기하학적 형태는 객관화 될 수 있으며 재현이 가능하다. 그 형태의 면적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 될 수 있는 형태이며, 임의나 우연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재현이 가능하므로 대량생산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형태의 재현성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다섯째, 기하학적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착시에 있다. 서로 다른 기하학적 형태의 길이, 면적, 각도 방향 등의 기하학적 관계가 객관적 관계와 다르게 보이는 착시를 이용하여 4차원의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⁴⁾

이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들은 점차 생활 주변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친밀한 존재로서 현대예술에 있어서도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 생성, 변천되었으며 각 시대나 지역에 다양하게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는 삶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 조형으로서 이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정한 대상의 묘사 없이도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냈고, 작가의 철학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표현된 간결함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의 도형적 성질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원의 형태적 개념

원(圓)의 형태적 개념을 정의해 보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 및 그 궤적에 둘러싸인 평면'⁵⁾을 원이라 한다.

두개의 힘이 변화되지 않는 조건 아래 점을 계속 굴러 나간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곡선은 조만간 다시 그것의 출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시작과 끝

4) 이혁진(李赫珍),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圓)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연구」, 2006. p. 5~6

5)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p.2730

은 상호 흡수되어지면서 하나의 선은 계속적 흐름으로 연결되고 공간의 분할을 갖게 되는 원이 성립되는 것이다.

원은 점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의 가장 작은 형태이다. 점은 추상적인 사고나 상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둥그런 것이다. 이러한 원은 또한 가장 간결한 형태로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언제나 중심 집중적 긴장을 유지하고 사방대칭형으로 폐쇄성을 갖고 있다.⁶⁾

이와 같은 형태를 게스탈트(gestalt)⁷⁾라고 부르는데, 정원(正圓)은 사람의 눈을 집중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정원을 단순한 조형적 의미나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심미적 원리와 인식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⁸⁾

원은 또 “가장 단순한 곡선이지만 수학자들은 그것을 무한수의 변을 가진 다각형으로 생각한다.”⁹⁾ 그래서 만일 한 원의 둘레로부터 눈에 안 보이는 한 점을 치운다면 그것은 이미 원이 아니며 자유곡선(plato-circle)이 된다.

피타고라스는 “원을 모든 단위의 기본으로 삼았고, 그 원에 근거하여, 모든 것은 점으로부터 시작되며 우주의 모든 반경이 똑 같은 원의 규칙적인 배열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또한 신(god)의 상징”¹⁰⁾이라고 했다.

원의 형태를 가진 도형에는 원, 구 타원의 종류가 있으며, 원을 절단함으로써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둥근 절단면에서 다양한 형태에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원의 형태는 모든 기하곡선의 주체이며 절단, 중첩, 접근, 분리, 병렬, 통합 등 상호관계를 통해 공간감과 거리감이 형성되어 또 다른 공간의 효과를 만들며, 원의 입체 형태인 구는 모든 대칭적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며 역동감을 갖고 있다.

6) 나용태, 「원의 조형성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6

7) 게스탈트는 형태심리학적 분석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시 지각은 세부보다 전체적 특성, 즉 궁극적으로 조각조각 분해할 수 없는 구조적 형태를 먼저 파악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즉 어린이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미숙해서라기보다는 얼굴의 특성인 원형을 먼저 지각하기 때문이라 것이다.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서울 : 미진사, 1999)

8) 이인선, 「기업 심볼 마크의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6, p.16

9) 유한태(1984), 「입체디자인 원론」, (서울 : 미진사), p.47

10) 유한태(1984), 「입체디자인 원론」, (서울 : 미진사), p.25

2) 원의 조형적 특징

사전에서는 원을 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 또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궤적 및 그 궤적에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라 정의한다. 원은 시작과 끝이 없이 순환되어지는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간결하게 정리된 단순한 형태로서 다른 기하학적 단위형태 즉, 삼각형, 사각형등과는 달리 아직 분할되지 않은 그 자체의 단일한 형태이다.

평면상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평면상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곡선은 그 평면상에서 중심을 돌려 회전시키면 그것이 새롭게 점유하는 장소는 처음의 위치와 같다. 이 성질이 '둥글다'라는 원의 본질이며, 이것에 의해 원은 다른 평면곡선과 구별된다.

“원은 다각형의 각이 그 수가 들어가면서 각이 차츰 둔화되어 각이 완전히 없어지면 만들어진다. 시작이나 끝이 없이 순환되는 특성으로 인해 영원과 전체성의 사상을 의미하며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가장 간결한 형태 중의 하나이며 원형이 지닌 운동감은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강한 시지각의 대상이 된다. 원은 폐쇄된 공간을 가지며, 구심력과 원심력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균형 있는 형태로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향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다.”¹¹⁾ 또한 원형은 주변의 다른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갖지만 다른 선이나 형상과 함께 사용하면 확실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

칸딘스키는 “원은 최대한으로 대립하는 것의 총합이요 구심성과 원심성을 하나의 형태로 균형을 갖추면서 통일을 이룬다. 세 가지 기본 형태인 삼각형, 사각형, 원 중에서 원은 사차원의 가장 명료한 자료이다.”¹²⁾ 라고 원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원은 시각적으로 명쾌하며 집중력이 강하여 하나의 선으로서 끝없는 순환성과 회전성을 갖는 동적 형태인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원은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중심대칭을 이루며, 그 자체

11) 김미옥·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2000), p.32

12) Wassily kandinsky, 「점. 선. 면」, 차봉희 역, (서울 : 열화당, 1997), p.133

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모든 평면 도형 중에 가장 대칭성이 강한 원은 오랫동안 영원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가장 기념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의 입체 형태인 구 역시 모든 대칭적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체형의 구는 단순 명쾌한 조형감정을 가짐으로써 많은 조형예술 작품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형적인 의미의 구는 그 안에 심오한 뜻을 지닌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조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원과 원을 조합한 입체화를 통해서나 조형을 통해서도 그 예술성을 표현하는 기초적 의미의 도형인 것이다. 이것은 현시대 정신을 표현하면서 조형예술로 예술가들에 의해 체계화된 표현의 다양화를 제공해주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원의 형태는 안정감과 변화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정신적, 심리적 작용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리 없는 변화와 형태의 표현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복되는 원의 배열과 조합, 크기의 다양성, 부드러운 이미지의 원형을 다양하게 디자인한다면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¹³⁾

우리의 심리상태의 일면에 원이 무의식적으로 우월하고 신성한 모티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원형이 지닌 운동감이 우리의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한 시지각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음과 동시에 원에서 역동적인 힘이 사방대칭형으로 방산되는 힘들과 서로 상쇄되고 있음으로 해서 제자리에서 안정을 취하는 형체 자체의 완벽함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조형적으로 볼 때에 원은 분할 가능성의 원형(原形)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정원, 타원, 구, 원기둥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이들을 자르면서 나타나는 곡선과 직선의 여러 형태와 절단면의 모습 등으로 다양한 형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은 중심에서의 힘이 균등하게 작용함으로써 원만, 조화, 균등, 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우리들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생활철학으로 동양, 특히 우리 민족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이혁진(李赫珍),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p.7-8

3) 원의 상징적 의미

고대(古代)로부터 우리의 생활 주변에 나타난 원에 내재(內在)된 상징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는 태양을 의미하며 원을 상징해온 것에는 만다라와 태극도가 있다. 질서 있고 우주 중심에서 확산되는 강력한 에너지인 동심원과 지상적 에너지인 사각형이 서로 어울려 우주의 신비를 응축한 만다라<그림 1>와 서로 상반되는 두 요소가 대립과 융합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내적 본질, 진리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태극<그림 2>이 동양에서 사용되었으며, 태양과 달, 영원과 합일, 완전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어 왔다. 원은 인간의 마음 전체를 상징하고 삶의 전체성(全體性)을 나타내려는 의지¹⁴⁾ 즉, 그들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사고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은 부드럽고 화평한 이미지 때문에 우주 법칙의 근원으로 보았다. 동양의 자연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자연의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자체의 질서를 찾고, 그 흐름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둥글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유를 엿볼 수 있다. 인간의 사유 체계에서 얻어진 종교적인 명상에 따른 정신적인 깨달음은 만다라¹⁵⁾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의 형식은 하나지만 시대의 심미적 이유에 의해, 혹은 그 시대의 사고에 의해 의미도 더욱 세부적인 상징으로 생활 속에 내재되어 왔다.

불교에서의 원은 불법과 불성, 즉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특히, '월인석보'나 '월인천강지곡' 등이 표상하는 불성은 달과 어우러져 한층 원의 의미를 심화시킨다. 불법이나 불성이 광태로 표상되면 달빛이 되고, 모양으로 표상되면 만월(滿月)<그림 3>의 원이 된다. 이렇게 양자가 어울리면서 원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게 된다. 불교의 윤회설(輪回說)에서도 원의 형태상의 순환성을 시간에 대한 해석으로 하여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의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다니는 영혼이 수레바퀴처럼 다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

14) K. 융(1964), 「인간과 상징」, 조승국, (서울 : 범조사), p. 287

15) 만다라는 행자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핵심과 합일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라는 의미가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본질(mandala) + 소유(la) 로 이루어진 말이다. 즉 우주의 본질이 가득한 원형의 바퀴를 말한다.

석한다. 이것은 곧 원의 형태상의 순환성을 의미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원이 만법의 근원이며 실제라고 하였다. 중세유럽의 랭스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된 '장미창' <그림 4>에서 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우주 속에 뿌리내린 인간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대 기독교 페디 수도원에 그려진 성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聖人)을 둘러싼 원형의 후광 <그림 5>은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⁶⁾ 이후에는 예수그리스도, 성모님, 성인들의 머리 뒤에 후광을 그리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원이 갖는 시각적(視覺的) 특성인 동그런 윤곽선과 중심대칭에 의해서 구조적 특징을 대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원에 내재(內在)된 상징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모든 씨앗들이 동그랗듯이 근본적인 생명의 시작, 창조, 시작과 끝, 유한과 무한, 영원, 천국, 하늘 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는 끊임없이 회전하는 힘을 통하여 자연의 주체를 통한 리듬과 순환, 반복과 규칙, 관계의 연결성, 행성들의 궤도 등 변화하는 패턴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셋째, 최소의 길이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도형(圖形)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기하학적인 공간으로서 평등, 단결 그리고 협동이라는 상징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원의 내부가 비어 있는 환형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지는 관습으로 혼례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끼워주는가락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원형(圓形)의 의지(意志)' 즉 약속의 의미(意味)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여러 종류의 원(圓)에 내재(內在)된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특징을 지닌 원은 마음이 갖는 제한적 조직력을 쉽게 받아들임으로서 마음의 초기적인 발달 단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表現)의 매개체로 존재하며, 종교나 개인마다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에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진리의 세계를 묘사하는 상징 형태는 모두 원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이 인간생활의 무의식의 세계를 포함하여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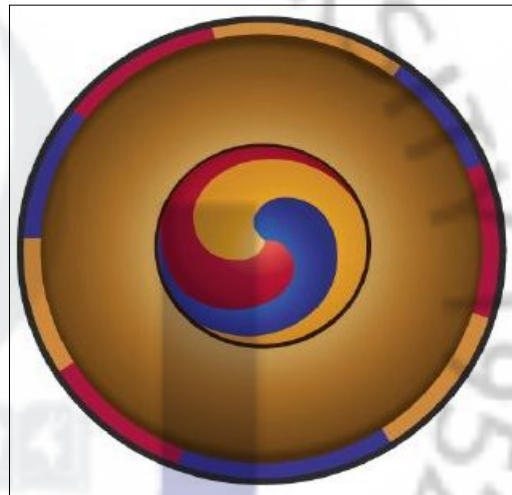
16)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5, p.491~494

련된 인간의 사고 또는 복잡한 인간의 사고까지 그 내면에 계속 깔리는 기본적인 힘의 배치에 대한 가장 명백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모티브(Motive)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은 마음의 전체를 모든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것의 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는 원은 강렬한 미와 시대감과 조형 감각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며, 예술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과 더불어 자아의식을 표출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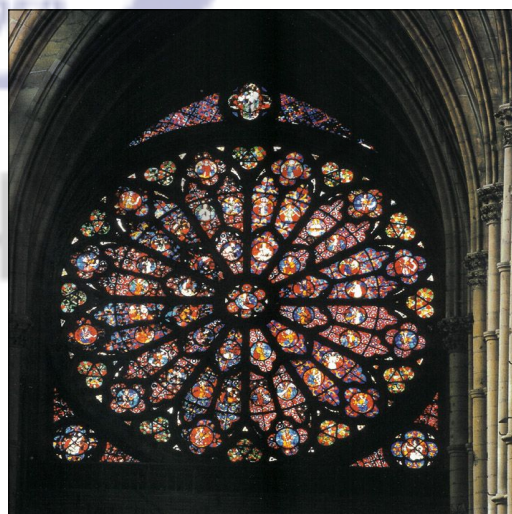
<그림 1> 만다라



<그림 2> 태극



<그림 3> 만월(滿月)의 원



<그림 4> 랭스대성당의 장미창



<그림 5> 고대 기독교 본당에 그려진 성화

4) 원을 주제로 한 조형 예술의 변천과 작품 연구

가. 원을 주제로 한 건축조형물의 작품연구

고대에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원형으로 회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원형은 우주를 상징하는 도형으로 인식해 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원형을 이용한 조형예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예식을 거행하는 신전이나 기물 등에서 원형이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우주적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건축에 구현한 것은 로마시대에 세워진 판테온이다. 판테온¹⁷⁾은 원형 건물로 그 현관인 주랑현관에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된 코린트식 기둥들이 있으며, 주랑 현관은 원형 홀을 향해 열려 있는데, 이 원형 홀 위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돔이 있다.<그림 6> 이 콘크리트 돔 가운데의 개구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며 여러 신을 모시는 범 신전으로서 평면뿐만 아니라 단면이 모두 원형에서 비롯되었다.<그림 7>

고대 로마시대에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건립된 판테온 신전은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무덤으로 사용되었으며, 브루넬레스키와 같은 건축가들은 피

17) 판테온(Pantheon)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이다. 고대 로마의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로 가장 보존이 잘되어 있고, 현재 로마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돔 구조이다.

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할 때 판테온을 참고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¹⁸⁾인 피렌체 대성당에서는 원을 완전함 즉, 신성한 형태로 간주하여 무한한 영적 존재와 일률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교회의 중심에서 상부로 높이 솟은 돔의 상·하에 설치된 작은 창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상징되었다.<그림 8>

동양에서도 원은 같은 의미를 상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동해를 향한 석굴암은 토암산 절벽 밑에 화강암 석굴로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다. 굴내(窟內)는 둥근 평면이며, 천정은 궁륭상(穹窿狀, 반구형 또는 아치형)으로 되었고 중심에는 연판(蓮瓣)을 새긴 둥근 돌로 눌러놓았으며, 장방형의 전실, 통로, 주실로 이루어졌다. 천체를 상징하는 둥근 공간에 이르면 한가운데에 높이 350cm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닌 석가모니 대불이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그림 9>

석굴의 평면계획을 보면 주실은 반지름 12자의 완전한 원이다. 지금의 석굴암 주실은 약간 일그러진 원의 형태이나 현존하는 주실 입구가 12자인 점과 그것이 주실의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의 한 변에 해당하는 점에 미루어 보아 완전한 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실의 천정에 해당하는 궁륭면도 감실 이맛돌 높이에서 24자를 직경으로 하는 원둘레 두고, 석판 열 개로 구성되는 원주대로 맞추어져 있고, 석판의 이음새 선의 연장은 궁융원심(宮融圓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법이 정교하며 장중웅려(莊重雄麗)한 기상이 넘치는 매우 보기 드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건축물들 속에는 원에 담겨 있는 상징성 및 전체성, 통일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현대의 건축물들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유선적인 동적요소를 가미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구겐하임미술관도 큰 달팽이 모양으로<그림 10> 원형의 중첩된 외관과 탁 트여 통풍이 잘되는 천장을 중심으로 한 나선형 구조<그림 11>의 전시장으로서 거대한 중앙 집중식 볼륨을 가지고 있

18) Renaissance Architecture - 봉건제도와 기독교 정신 위주의 중세 붕괴되고 상공업 위주의 시민사회가 성립된 15초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어 15~1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의적 경향의 건축양식

다. 원형의 특수조형이 내부에 위치한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고 외부에서의 형태감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의 공간감이 극적이라 할 수 있다. 거대한 도시 뉴욕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나선형의 로툰다¹⁹⁾ 형태를 제안하여 실제화함으로써 뉴욕의 모뉴멘탈한 건축의 하나로서 각광 받고 있고 현대의 판테온이라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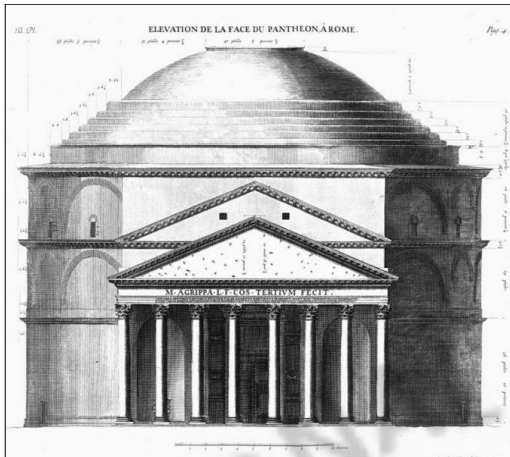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쪽에서든지 선과 면의 입체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도 방향성이 자유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이다. 기존의 형태구성이 지닌 규칙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이른바 해체주의의 선구적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내부의 공간은 주로 수평과 수직 동선처리로 되어 있으며, 계단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곡선의 반복과 점이의 효과가 잘 표현되어서 웅장하면서도 홀을 중심으로 한 원심성을 가진 역동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

그리고 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바람을 타고 터질듯 머금은 요트의 팽팽한 뜻을 연상하게 하는 단순명쾌한 구조적 형태를 보인다. 유선의 반복에 의한 물결과 같은 강한 동심원은 기하학적인 선의 흐름과 주변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웅장하며 복잡한 건물 형태를 만들어내어서 형태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현대적인 시각이 강한 조형성이 보여지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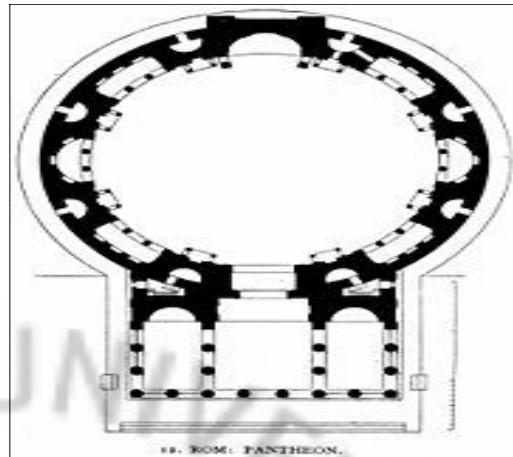
스페인 발렌시아의 예술과 과학의 종합 단지는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1935~)경과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구조건축가 산티아고 카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 1951~)가 만들어낸 건축공간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미묘한 동적인 움직임과 빛과 구조체가 만나 반복되는 자연광의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안의 공간은 실용적인 존재 이유를 넘어서 빛과 어우러져 조각적 공간으로서 존재하며 이렇게 빛과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공간은 호수에 비취 서로 대칭형을 이루고 구조적인 미적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그림 14>

이렇게 현대 건축에 와서는 원형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기하학적인 선에 의한 순수조형 요소인 원의 반복과 비례미를 살려서 강력한 통일성을 이루고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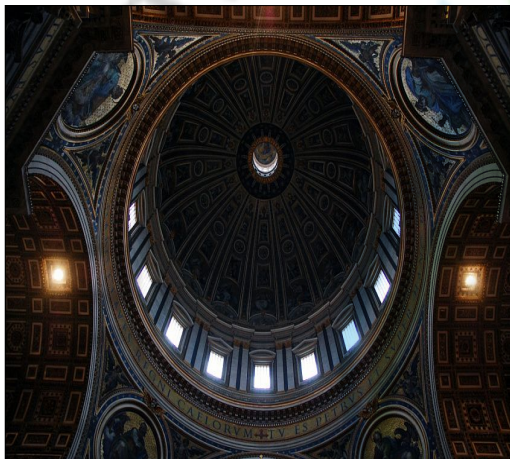
19) 로툰다(rotunda)는 지붕이 돔과 같이 둥근 원형건물이나, 원형의 홀을 말함.



<그림 6> 앙투안 데고데가 그린 판테온 신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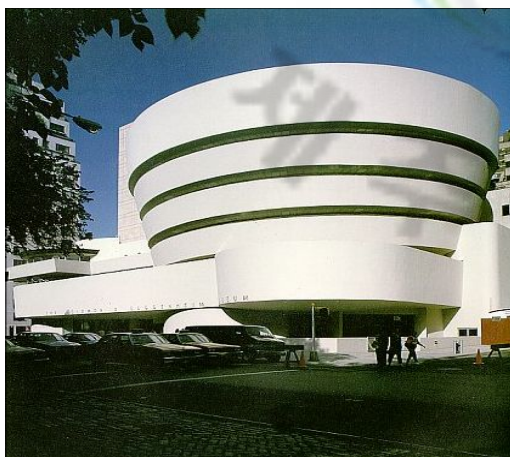
<그림 7> 판테온 신전 평면도



<그림 8> 피렌치 대성당의 돔



<그림 9> 석굴암



<그림 10>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그림 11>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나선형 구조



<그림 12>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그림 13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림 14> 스페인 발렌시아의 예술과 과학의 종합 단지 야경

나. 원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연구

원은 중심축에 대하여 원호의 선을 따라 순환하고 회전하는 느낌을 표현한다. 또한 사방 대칭형으로서의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며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원불교²⁰⁾에서의 원의 형태는 원만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불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림 15> 결국 이는 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다비드²¹⁾의 '사빈느의 약탈'의

20) 우주의 근본원리인 일원상(一圓相, 즉 O의 모양)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종교
21) David Jacques Louis - 프랑스의 화가, 주요작품 ; 「마라의 죽음」(1793), 「사빈느 여인의 약탈」(1799), 「나폴레옹의 대관식」(1805~1807)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 방패로 묘사되는 원을 놓아 중앙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화면 구성을 원을 중심으로 하여 펼쳤으며, 완벽함을 대상에 충실하고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원이 가진 회전과 순환의 성질에 의한 운동감을 보여주는 구도라 할 수 있다.<그림 16>



<그림 15> 원불교 묘사그림



<그림 16> 자크 루이 다비드, 사빈느 여인의 약탈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원의 간결하고 명쾌한 시각적 특성으로 인하여 입체주의 미술과 추상화 경향의 미술에 반영되었는데, 로버트 들로네(Robert Delaunay)의 작품 '삶의 기쁨'(Joie de Vivre)<그림 17>과 '원형(Circular Forms)'<그림 1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간결한 원형의 선들이 수축되었다가 확산되는 동적인 형태를 절단된 원들로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상징하였으며, 원의 완전한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산업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고독감을 분절된 원의 형태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추상미술의 이론을 정립한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원은 최대한으로 대립하는 것들을 종합하고 있으며, 구심성과 원심성을 하나의 형태로 균형을 유지시키고 통일시킨다."고 했으며 내적 표현을 다양한 크기의 원과 화려한 색상을 검은 바탕에 배치하여 화면과의 조화를 이루었고<그림 19>, 큰 원안에 크고 작은 원들을 그려 넣어서 원이 우주적 요소를 띠면서 무한한 공간에 원 그 자체가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어 화면 중심에 집중, 교차, 중첩함으로써 4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그림 20>

클레(Paul Klee)는 “원은 지상적인 속박의 탈락에 의해 성립하는 우주적인 운동의 형태”라고 하였으며 선과 색으로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여러 개의 직선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올라가고 위쪽에는 하나의 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함으로써 단순하지만 독특한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그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그림 21>

우리나라 근대회화의 대표적인 작가 김환기는 한국적 풍류의 정서를 ‘달’의 둥그런 원형에 담아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간결하고 단순한 선과 색채로 표현하였고,<그림 22> 정해숙은 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기하학적인 구성을 하였으며, 전체가 부서져 조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각들이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²²⁾<그림 23>

원의 표현은 고대(古代)로부터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언제부터인가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키는 상징의 중요한 모티브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상징으로서 영원과 양극의 합일로 완전이나 전체성이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7> 로버트 들로네, 삶의 기쁨
(Joie de Viv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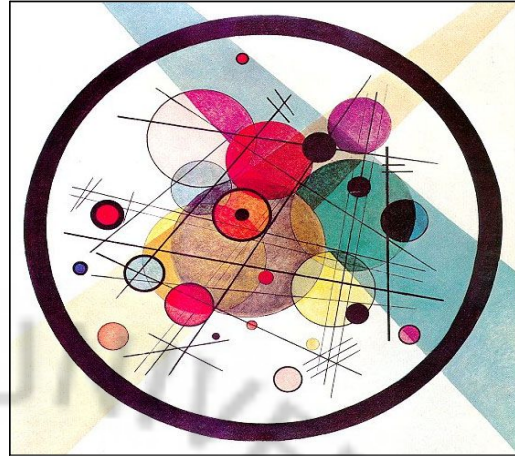


<그림 18> 로버트 들로네, 원형
(Circular Forms)

22) 이혁진(李赫珍), 「원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2006, p.14~15



<그림 19> 칸딘스키, 여러 개의 원
(Several Circles)



<그림 20> 칸딘스키, 원속의 원
(Circles in circles)



<그림 21> 파울 클레, 성곽과 태양(Castle and Sun)



<그림 22> 김환기, 여름달밤



<그림 23> 정해숙, 투영

다. 원을 주제로 한 입체작품 연구

원은 평면적인 회화에서 뿐 아니라 입체조형물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908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루이지(L.Pernier)에 의해 지중해(Mediterranean Sea)의 크레타(Crete) 섬의 파이스토스(Phaistos)라는 미노안(Minoan) 궁전에서 발견된²³⁾파이토스 원반(Phaistos Disc)은 기원전 2천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거울 모양의 부드러운 점토판(Clay Disc)으로 만들어졌으며, 직경 약 15cm의 크기의 정원(正圓)으로서 원반 중앙을 향해 나선형으로 양쪽에 스탬프 모양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글씨로 여겨지며 아직 해독되지

23) Herakleion Archaeological Museum, p.76~77

못하고 있다. <그림 24> 이렇게 인류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원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방면에서 표현되어 왔다.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청동거울 속에도 원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한 원은 곧 태양으로 상징되며, 생명의 근원이 청동 거울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 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청동거울의 빛은 그 자체가 지배자를 신성한 존재로 비쳐지게 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배자의 상징물로서 의식을 거행할 때나 권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의기로서 사용되었다. 때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사품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실용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그림 25>



<그림 24> 파이토스 원반



<그림 25> 당나라 청동거울의 배면

이렇게 고대시대에서의 원형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으나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하학적인 단순 명쾌한 시각적인 조형요소로 인해 각종 작품에 응용되었다.

기능적 미학을 추구하였던 러시아의 구성주의 작가 알렉산더 로드첸코²⁴⁾는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의 탐구를 통해서 이차원에서 삼차원에서의 변화를 주고 독자적인 접힘과 펼침의 구성물을 부조로 만들어 보임으로써 원형 안에서 새롭고 자유로운 조형미를 보여주었다.²⁵⁾<그림26>

24) 알렉산더 로드첸코(Aleksander Mikhailovich Rodchenko, 1891~1956)는 러시아 구성주의 사진작가, 포스터, 각종 디자인 등 실용적 분야에서 큰 활약, 포토몽타주, 포토스퀼스 등 현대 사진 미학의 중요한 경지 개척

25) 현수미, 「러시아 구성주의의 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5, p.30

원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영국출신의 조각가 나이젤 홀(Nigel Hall)²⁶⁾은 3차원 개념 연구를 지속해온 작가이다. 원추의 단면과 막대로 구성된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을 통해, 정제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도식적인 기하학적 형태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실제적 존재감들을 특징으로 한다. 주로 광택을 입힌 나무나 철재를 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3차원의 공간에 드리워진 음영과 조각 재료가 지니는 중량감 그리고 그 안의 기하학적 요소들 간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직선과 곡선으로 모호하게 대비시켜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연과 작가 자신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감흥을 원과 기하학이란 언어를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였다.<그림 27>

주후식의 공간(space)<그림 28>은 흙 판위에 구성된 타원의 형태와 직선, 곡선들을 분리하고 깎고, 왜곡시켜서 착시효과를 통한 인간관계에서의 실상과 허상을 표현하였고, 김여름의 물구나무서기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 있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며 정원을 오려내어서 변형하고 두 개의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였다.<그림 29>

박은선의 작업은 원형을 반복 중첩시킴으로써 구조적인 형태를 보이며 있으며,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면을 번갈아 가며 중첩시킴으로써 조각을 넘어서 회화적인 느낌마저 든다.<그림 30> 조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은 원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를 반복하여 수직으로 서 있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대한 기둥을 축조해내는데, 이들의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서 일종의 생성 원리 혹은 생명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다.

나용태의 작업은 원을 이용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원이 가지는 상징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정원이라는 모던하고 정제된 형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씨앗의 발아를 연상케 하며, 반원과 반원 사이에 오닉스를 세팅하여 긴장감을 표현하였다.<그림 31>

또한 만다라는 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인 우주의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 작품으로서, 통일성과 간결성 그리고 유동성을 강한 색채 대비로 표현하였고 알루미늄 판을 중심축에 두고 회전하면서 구성과 칼라의 변화를 주어 역동적인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었다.<그림 32>

26) 나이젤 홀(Nigel Hall, 1943~)

이혁진의 작품은 도시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균형과 질서의 이미지를 원이라는 형태를 교차 구성함으로써 시각화하였으며, 원의 안정적인 형태인 외형에 내부의 원심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원을 삽입시킴으로써 리듬감을 표현하였다.<그림 33>

보달만츠의 작품은 10개의 용기 위에 3차원의 드로잉된 건축적인 형태가 그려져 있고, 도자의 투명함으로 인해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기능성을 가진 생활도자로 간결하고 섬세한 디테일과 단단하며 내밀한 밀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형 못지않게 독특한 작품성과 기하학적 표현에서 오는 단순, 명쾌한 감흥을 유발하고 있다.<그림 34> 원형과 유기적인 곡선을 조합한 타케무라 작품은 특히 현대에 이르러 단순한 선과 면의 조화, 색상의 대비로 장식성이 돋보이며 도형에 의하여 구성된 양식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5>, 마크 루솔드의 작품인 조형도자에서는 다변화하는 현대 도예의 탈장르 경향과 현대 도예가들의 철학적, 사회적, 실험적인 접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6>

원은 그 형태가 지닌 시각적 특성의 우수함으로 인해 예로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존재하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도 철학과 종교 등이 상징의 중요한 모티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조형미로 심리적 의미를 담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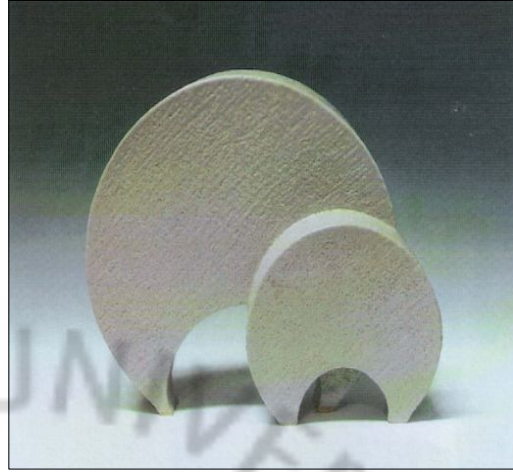
<그림 26> 알렉산더 로드첸코, 메달려 있는 구조물(Hanging Construction)



<그림 27> 나이젤 홀, 코튼강 (Stretched+Compre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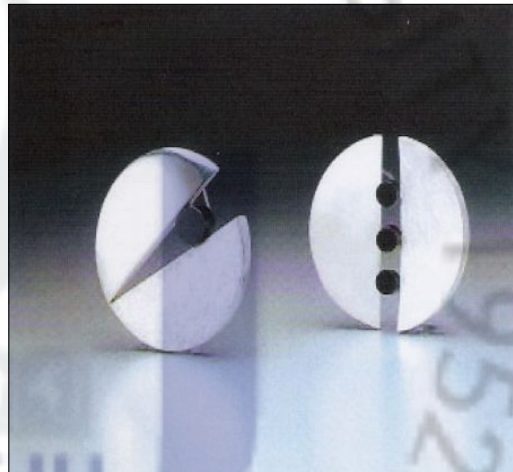
<그림 28> 주후식, 공간(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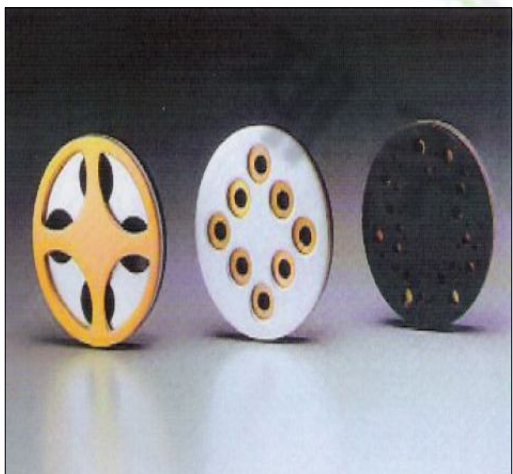
<그림 29> 김여름, 물구나무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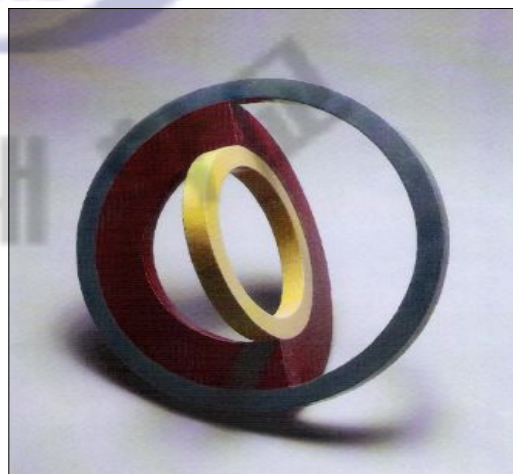
<그림 30> 박은선, 무한기둥-접속Ⅲ-공간



<그림 31> 나용태, 씨앗의 발아



<그림 32> 나용태, 만다라



<그림 33> 이혁진, 원형공간(Circle Space)



<그림 34> 보딜 만즈, 건축적부피(The Architectural Volume)



<그림 35> 타케무라 유리, 수다스런 그릇 (Talkative Bowl)



<그림 36> 마크 루솔드, 우주의 반구 (Kosmos Hemisphere)

3. 제주의 풍토적 문화 속에 나타난 맺들의 조형성

1) 제주의 풍토와 문화적 특성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상, 동지나해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해로 상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지형적으로 보면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있고 섬 전체가 산으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해발 1,000m 이상의 지대는 고산지대로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거주지로는 부적당하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는 해발 200~500m 지대는 중산간 지대라 불리며 해안지대보다는 경사가 급하나 산악지대에 비해서는 완경사의 용암평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초지를 이루어 야생 초식동물과 말, 소의 방목지가 되기도 했다. 27)

제주도는 아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한편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고, 여름에는 많은 강수량을 동반하는 강한 태풍이 불어 '풍다'의 섬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초가, 돌담, <그림 37> 올래 등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적 특징들은 모두 바람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인들은 집을 짓든, 취락을 형성하든 먼저 바람을 의식했다. 지붕은 되도록 낮추고 흙돌벽은 되도록 높이 처마 밑까지 쌓아 올렸다. 대문은 올래를 만들어 길에서 휘돌아 들어가도록 했고, 집둘레에는 돌담을 쌓고 그 밖으로는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게 하였다. 거센 바람은 숲 뒤로 넘겼고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돌담이 막아 주도록 하여 거친 환경을 극복했다.

또한 제주인들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거친 바람과 잦은 태풍, 화산회토로 뒤덮인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부(富)를 축적하기보다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 조냥 정신을 갖게 되었으며 거의 다 가난했지만 비슷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형성된 서민적 생활문화는 제주인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어 그들의 삶 자체를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함을 지니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적 고난과 풍토적 환경으로 인한 피난처로서 민간신앙이 발달하게 되었다.

27) 1998,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탐라」, 역사와 문화, p.15

민간신앙은 산신(山神)이나 사찰의 신앙 대상으로 수용되거나 불교의 신앙 대상들이 민간 신앙화 되는 등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불상뿐만 아니라 자연석까지도 때로는 미륵님으로 모셔졌으며, 제주 불교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복신미륵으로 동자복, 서자복처럼 토속화된 불교문화가 서민들 생활에 크게 성행하였다.

이러한 동자복, 서자복처럼 석조 미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있다면 단연 돌하르방<그림 38>과 동자석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제주의 조각품들은 상반신, 특히 얼굴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현무암의 특성으로 인해 세밀한 묘사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교를 배제하고 표현한 제주의 돌조각은 형태를 생략하거나 과장하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미술과 상통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 현무암이 갖는 색감과 무게감이 더해져 제주 조각만의 독특한 미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은 제주도민들의 삶과 사회적 기질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풍토를 형성하였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 위치에 있어서 북방문화(北方文化)와 남방문화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 토착문화와 상호 융합하면서 제주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²⁸⁾

이와 같이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은 제주도민들의 삶과 사회적 기질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세에 의한 강점문화, 무역의 향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입된 본토와의 교류문화, 풍랑과 난파에 의해 우연히 표류해 들어온 표류문화 등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다. 탐라의 풍속, 신앙, 생산, 예능 등으로 나타나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 북방 또는 남방에서 흘러들어온 이러한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본토와는 다른 제주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몽고, 일본과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으며, 본토와는 다른 제주 특유의 풍속도 많이 발견된다. 제주의 생활문화는 이러한 옛 문화유산을 선택하고 계승발전 시켜 온 제주인의 생활양식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는 기존의 제주의 문화와 상호 결합되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섬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였으며 제주도만의 독특한 형식의 생활도구가 제작되어진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²⁹⁾

28)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濟州研究叢書2), p.56

29)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濟州研究叢書2), p.56



<그림 37> 제주초가와 돌담길



<그림 38> 돌하르방

2) 제주 땃들의 조형적 특성

인간이 미의식을 갖게 된 것은 자연을 접하며, 자연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것을 실용적이고 곱게 만들려는 욕구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은 모든 형상의 기초이며 조화와 균형의 척도이고 형태와 색채의 무한한 보고이다. 인간은 마음의 눈을 통하여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끊임없이 조형물을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조형물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풍토적 조건 속에서 종교, 사상, 관습 등의 영향을 받아 그 지역만의 고유한 형태와 색채를 갖게 되며 그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다.

제주인들은 화산섬이라는 풍토적 어려움 외에도 외세에 시달려왔다. 외세는 후에 이 땅 위에서 제주인의 삶을 곤궁하게 하는 착취의 힘으로 늘 작용했다. 그러나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민구에서의 조형미는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투박하지만 다정다감한 맛이 절로 우러난다. 미의 근원이 풍토에서 비롯되듯 제주인들은 현무암의 거친 질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생활 용구와 조형물을 만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기교를 배제하고 표현한 제주돌 민구류들은 세밀한 조각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색조는 제주 현무암만이 갖는 향토적인 색조에 무게감이 더해져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제주의 자연적인 풍광과 자연스런 조화미

를 형성하고 있다. 돌 민구류들 중 하나인 제주 맷돌도 풍토에 기반하여 소박하고 검소한 듯 절제되어 있으며³⁰⁾ 자연과 어그러지지 않는 조화미를 지향하고 있다.

원의 형상을 담고 있는 맷돌은 낮은 원통형이며 중앙에 곡물을 넣을 수 있는 홈을 파고 하단으로 구멍을 뚫어 밑돌과 윗돌이 빠지지 않고 회전이 용이하도록 기기를 달았다. 밑돌의 문양은 빗살문 비슷한 선각을 만들어 일정한 곳으로 통과하도록 하였다. 둥글넓적한 2개의 돌을 위 아래로 겹치고 아랫돌의 중심에 박은 중쇠에 윗돌 중심부의 구멍을 맞추어 회전시키면서 사용하였는데 제주에서는 이를 '정궤' 라고 부른다. 단단하고 둥근 돌 두 짝을 위아래로 포개 손잡이로 돌려 보리, 조, 콩, 팥 등의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낼 때 사용했다.

1명 또는 2명이 마주 앉아 하던 맷돌질은, 특히 두 사람이 할 경우 호흡이 잘 맞아야 맷돌질이 쉽고 가루도 곱게 갈렸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바쁜 일손이 끝난 저녁나절이나 식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맷돌질을 했었다.<그림 39> 제주 여인들이 맷돌을 돌리며 불렀던 '궤 궤는 소리'에는 고단하고 힘겨운 제주아낙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한껏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 어머니나 할머니는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보리나 밀을 갈고 또한 우리의 가난을 갈았다.

마을에서는 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자방아가 있었다.<그림 40>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모진 풍토와 역경의 삶을 넘어서 함께하였던 제주인들의 순박하면서도 끈질긴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풀궤라 하여 옷에 먹일 풀을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갈거나 콩죽 등을 만들기 위해 젓은 콩을 갈았던 맷돌이 있다. 이것은 밑쪽에 주둥이를 길게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며 흔히 한 사람이 손잡이를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가리에 곡물을 흘려 넣는다. 그러나 맷돌이 크고 갈아야 할 곡물이 많을 때에는 손잡이에 가위다리 모양으로 벌어진 맷손을 걸고 2~3사람이 노를 젓듯이 앞뒤로 밀어가며 갈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인의 식생활용구인 맷돌의 종류와 그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30) 아름다운 제주 석상, 김유정, p.15



<그림 39>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맷돌질 하는 모습



<그림 40> 방앗간에서 연자매 돌리는 모습

(1) 맷돌(정래)



<그림 41> 맷돌

제주에서는 맷돌을 ‘래’라고 부른다. 단단하고 둥근 돌 두 짝을 위아래로 포개 손잡이로 돌려 보리, 조, 콩, 팥 등의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낼 때 사용했다. 맷돌은 물맷돌과 구멍맷돌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물맷돌은 수로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퀴를 돌리고 그 힘을 받은 굴대가 윗 짝을 회전시키는 맷돌로서 서아시아에서 발명되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두 구멍 맷돌은 긴 작대기를 잡아매고 집짐승이 끌어서 돌리며, 네 구멍 맷돌은 口자 꼴의 틀을 엮고 이를 네 구멍에 잡아매고 두 마리의 집짐승이 돌렸다.

맷돌은 원형이며 중앙에 곡물을 넣을 수 있는 홈을 뚫고 하단으로 구멍을 뚫었다. 또한 밀돌과 옷돌이 빠지지 않고 회전이 용이하게 뾰족한 기기를 달았다. 밀돌의 문양은 빗살문 비슷한 선각이 있기도 한데 가루가 일정한 곳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둥글 넓적한 2개의 돌을 위 아래로 겹치고 아랫돌의 중심에 박은 중쇠에 윗돌 중심부의 구멍을 맞추어 회전시키면서 사용하였다.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제주래는 맷돌 가운데 최상품이었다. 그래서 제주 래는 돌로 만든 일상용품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지방으로 유출됐던 물건이기도 하다. 이는 제주의 현무암이 가벼워 운반하기에 편하고 현무암의 기공으로 인하여 맷돌면에 요철이 많아서 곡식이 잘 갈렸기 때문이다. 맷돌은 여성들의 전용물(專用物)이라 할 만큼 여성들이

주로 사용했었다. 곡식의 탈곡이나 곡식의 제분(製粉) 등을 담당했던 조상들의 생활도구인 맷돌은 지난 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우리의 곁에서 사라졌다.

(2) 연자방아(물방애)



<그림 42> 연자방아(물방애)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은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놓은 위에 나무 테를 씌워 말이나 소에 엮어, 아래 위가 잘 맞도록 하고 마소의 고삐를 잡고 끌게 하는 곡물 가공 방아로서 옛날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곡식을 탈곡(脫穀), 제분(製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이곳을 연자방앗간 또는 연자맷간, 물방애라 하였다. 큰 돌판 위에 얹은 돌이 조형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비례가 아름답다.

다워 지금은 정원의 장식용으로 놓기도 한다.

(3) 풀꺾래



<그림 43> 풀맷돌

제주 지역에서는 마른 곡식을 가는 맷돌을 '꺾래'라 하였고, 젖은 쌀이나 젖은 콩을 가는데 쓰던 맷돌을 '풀꺾래'라 하였다. 풀꺾래는 아래쪽의 밑이 높게 도드라지고 코가 흘러내리 듯 달려있어 국물이 있는 것을 갈아서 받아내기 쉽게 만들어졌다. 꺾래에 비해 크기가 작는데, 보통 모시나 명주 등에 먹일 풀을 만들기 위해 쌀을 갈거나 불린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생활용품이었다.

이렇듯 미의 근원이 풍토에서 비롯되듯 제주의 민구에서 보여 지는 제주미란 제주 풍토에 기반을 두어 자연과 어그러지지 않는 조화미를 지향하면서도 인위적으로는 단순 간결하며, 검소한 듯 절제되고, 질박하면서도 소박하며, 다정다감한 맛이 있다. 이런 미의 요소가 제주 민구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Ⅲ. 작품제작 및 설명

1. 제작 의도 및 방법

제주는 풍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반도와는 다른 독특한 자연미나 문화적 유산들을 물려받았으나 그 또한 현대의 물결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제주에는 돌과 바람이 많아 돌 문화가 발달하였고 현무암을 이용한 돌 제품들은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각 가정마다 돌로 된 민구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라 부르는 맷돌은 가정마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흔히 보일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맷돌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고 있고 천연의 나무 자루와 함께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어서 본 연구자는 평소 이러한 맷돌에서 현대적인 원통형의 조형미를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하게 변환될 수 있는 조형적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이러한 맷돌을 모티브로 하여 원의 조형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하였으며 원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조형방법 등을 탐구하여 현대적 조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록 맷돌의 형상은 2개의 원통형으로 그치지만 이를 분리시키거나 병렬시키고, 자르거나 재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을 꾀할 수 있고, 원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심 집중적인 긴장을 유지시키며 역동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절단, 중첩, 분리, 병렬, 통합 등의 상호관계를 통해 또 다른 공간적 효과를 줌으로써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가능성이 있으며, 영원과 전체성이라는 원의 중심사상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작품 제작 방법으로는 판 성형(Slab Building) 기법을 이용하여 점토판을 만들어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제주 현무암의 재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돌 조각으로 두드려 가며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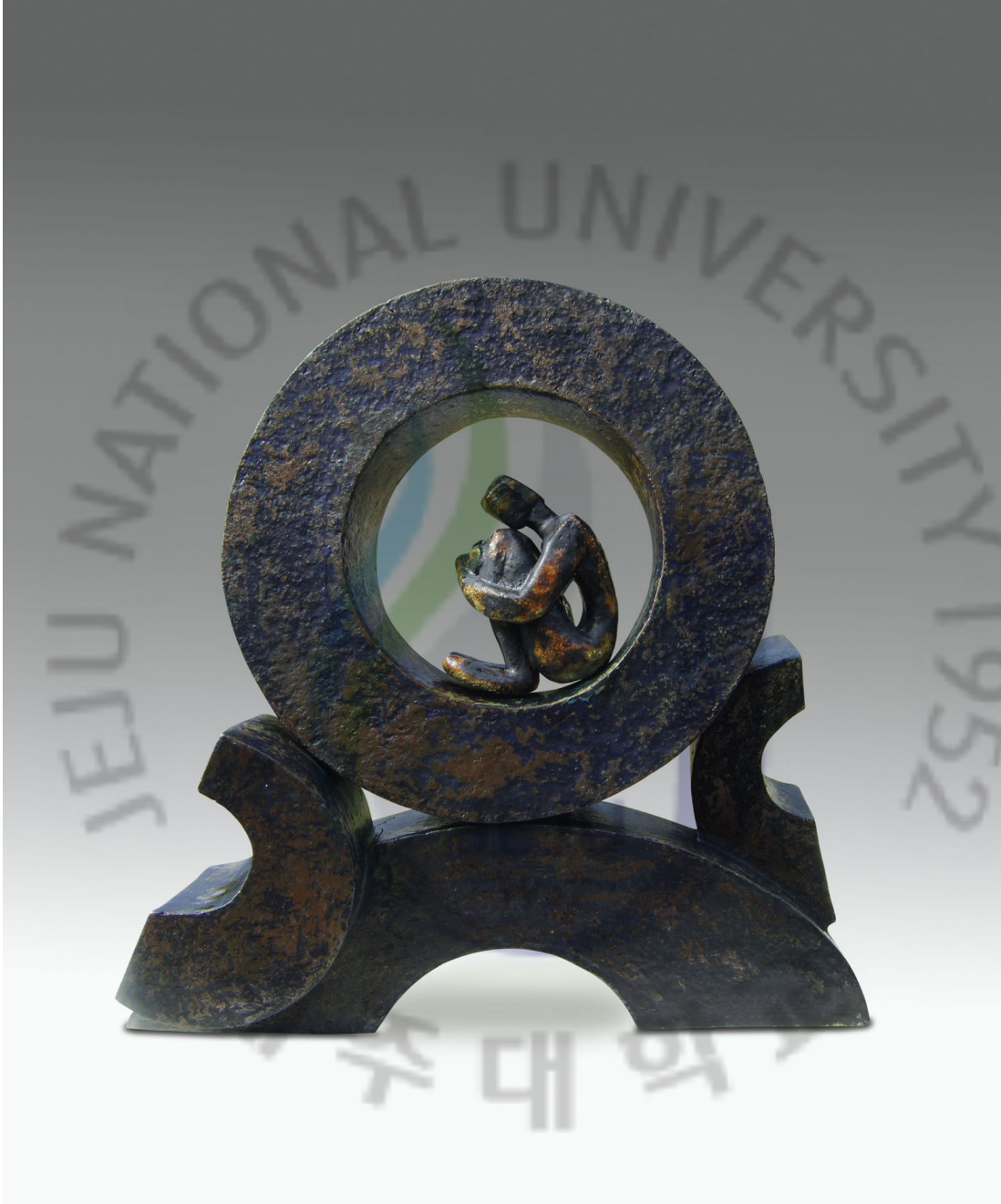
여러 개의 원들을 중첩시키기 위해 점토판들의 습도와 건조 상태에 특히 유념하였으며, 건조시의 변형이나 소성시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성형을 마친 후에

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건조시켰다.

또한 현무암의 질감이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흑유와 철, 망간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요철부분이 잘 보이도록 처리하였으며 제주의 향토적인 색감을 내기 위하여 철유, 흑유, 코발트유 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2. 작품 설명



작품 I 상생 - 어우리짐 / 30cm×40cm×14cm

작품 I 상생 - 어우러짐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완전함을 느껴 끊임없이 자신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점차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게 됨으로써 서로 어우러지고 만나 상생의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원은 사방대칭형으로 공간에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는다. 그 공간의 시작을 태아가 자라나는 어머니 배속이라 생각하고, 자아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제작하였다.

맷돌에서 보이는 정원(正圓)과 이를 절단한 크고 작은 반원(半圓)들을 결합하여 다른 이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정원 속에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토우를 얹혀 시선을 중심으로 유도시켰다. 삼각형 구도로써 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감을 갖고 작품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소지는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작업으로 제작하였으며 정원과 반원들은 서로 다른 개체를 건조 상태가 비슷했을 때 오려내어 접합시켰다. 1차 소성 후 흑색 안료와 백상감토를 혼합 후 붓으로 칠한 다음 마른 후에 사포질을 하여 표면의 질감을 표현했다. 2차 소성 시 흑유와 코발트 메트유를 분무하여 맷돌의 질감을 표현하였으며 토우는 전체 작품과 따로 철과 흑유를 바르고 닦아가며 색상을 내었고 1250℃에서 환원 소성하여 2차 소성 후 접목시켰다.



작품 II 상생 - 어우러짐/ 30cm×40cm×14cm

작품 II 상생 - 어우러짐

제주인들은 화산섬이라는 풍토적 어려움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세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생활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이 늘 공존하였다. 그러한 제주인의 강인한 삶을 원형을 절단하고 다시 붙임으로써 상생의 어우러짐을 곡선에서 오는 부드러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원형을 중첩하여 하단에 위치시켜 작품의 안정성을 꾀하였으며 상단에는 원형을 뚫고 절단하여 매서운 바람과 외세를 상징하는 사선 처리를 하여 변화와 운동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인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하였으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독립적이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앙의 뚫린 공간은 희망의 미래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흑유를 칠하고 닦은 후에 코발트 유를 분무 시유함으로써 그 두께에 따른 변화를 이용하여 다공질의 현무암과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색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정원과 반원은 따로 작업 후 2차 소성시 접목시켜 시유하였다.



작품 Ⅲ 상생 - 어우러짐/ 25cm×65cm×12cm

작품 Ⅲ 상생 - 어우러짐

인간은 혼자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우러져 상생한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과 자아를 추구하는 세계가 저마다 다르고 또한 외부 세계로부터 한계가 주어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이중적 패턴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복잡한 현실사회 속에서 등글게 주변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에서 상승하는 희망찬 미래와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다.

하단의 정원과 반원은 조형물의 안정감과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앙의 세 개의 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만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꼭대기의 반원은 희망의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평화를 상징하는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수직적인 상승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조합토를 이용하여 판 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원형과 반원형을 따로 제작 후 850℃에서 1차 소성 후 상감에 초록색 안료를 섞어 붓으로 칠한 후에 사포로 닦아내고 흑유를 얇게 분무 시유 한 위에 채유로 다시 시유하여 1250℃에서 환원 소성을 하였다. 2차 소성이 끝난 후에 다섯 개의 원형들을 조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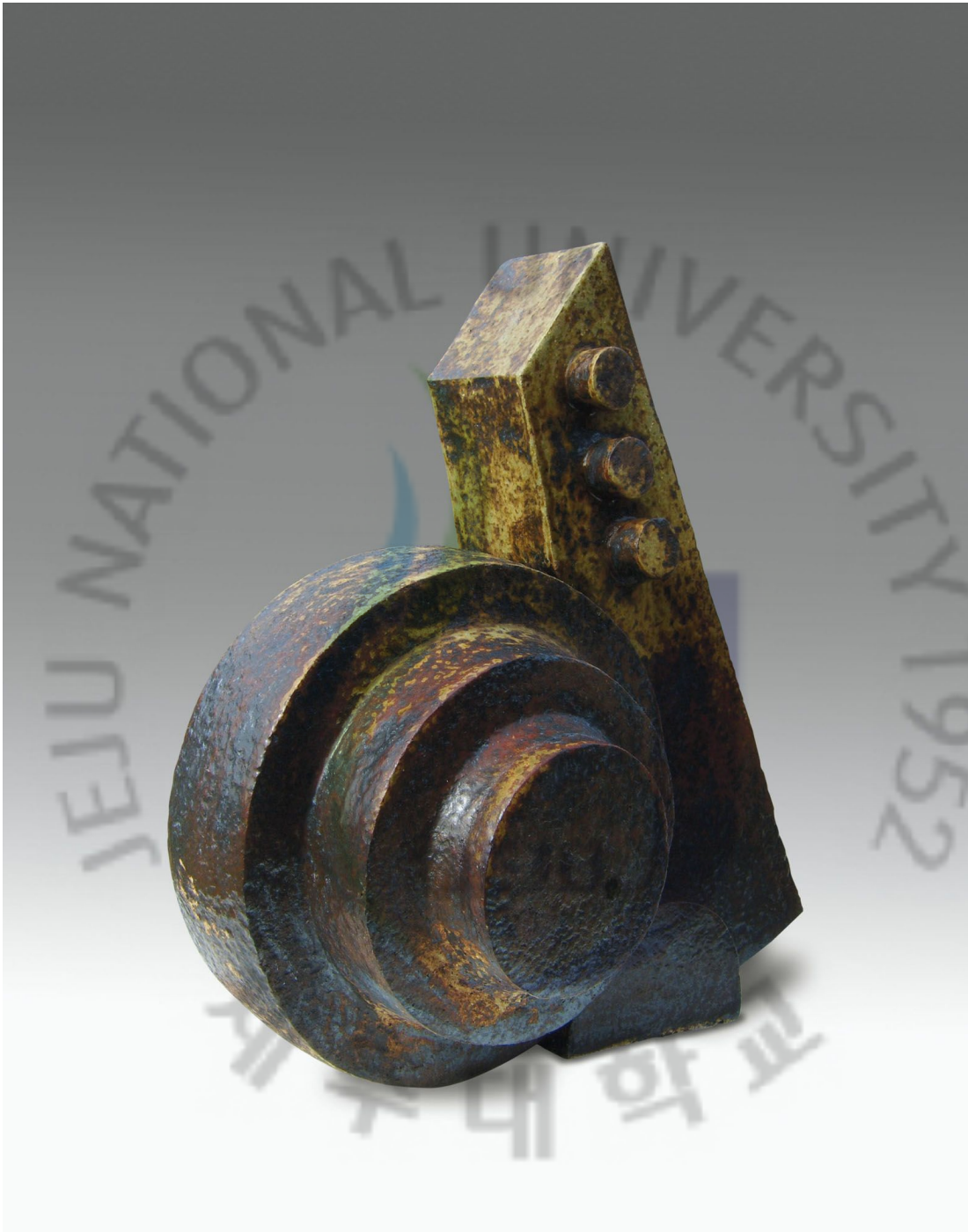


작품 IV 상생 - 어우러짐/ 80cm×30cm×18cm

작품 IV 상생 - 어우러짐

시작과 끝이 없는 원의 순환적 특성으로 원의 영원한 상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끝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인간세상의 순환을 연상하며 작업하였다. 크기에 따른 원형의 반복에 의한 리듬은 시각적 운동과 동적 변화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걸터앉은 왜소한 느낌의 토우는 삶의 무게에 눌러 사색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고, 굴렁쇠처럼 굴러가는 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삶의 순환과 무게감을 표현하였다. 조형형식의 원리인 점이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일정한 삶의 질서를 원의 절단면에 의한 비례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판 성형을 하였으며, 표면의 질감은 제주의 현무암에서 나오는 기공을 표현하고자 작은 돌 조각을 가지고 찍어서 표현하였다. 1차 소성 후 흑색 안료로 붓질을 하고 초벌한 다음에 사포질을 한 후 재유와 흑유를 분무 시유하였다.



작품 V 상생 - 어우러짐 / 38cm×38cm×12cm

작품 V 상생 - 어우러짐

산업화와 과학화로 인하여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바쁜 인생의 굴레에 얽매어 살고 있다. 원은 순환과 연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초 도형이다. 순환과 연속성을 각기 다른 크기의 세 원들을 중첩하여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삶의 무게감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점증과 점이와 같은 시각적인 대비와 새로운 형태와 조형요소를 형성하여 변화를 주어 현대인의 불완전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중첩된 세 원 밑에 놓여진 반원은 힘들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중첩된 원과 접목된 기둥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표현하였다. 삶의 무게가 고단할 때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 그 짐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런 흐름과 동적인 리듬감으로 통합성을 느끼게 했다. 특히 제주의 대문 역할을 하였던 정주석을 멧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제주의 향토미를 심분 발휘하고자 하였으며 유약도 자연스럽고 소박한 재유를 사용하였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상감에 흑색안료와 붉은 색 안료를 혼합하여 붓으로 칠하고 닦아낸 후 다시 사포질을 하였다. 그리고 흑유로 얇게 분무 시유한 후 다시 재유로 분무 시유하여 2차 소성하였다.



작품 VI 상생 - 어우리집 / 40cm×35cm×12cm

작품Ⅵ 상생 - 어우러짐

원의 형태를 절단, 분리, 접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현대의 불완전한 만남을 형상화하고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에서 타인과의 만남은 어긋나기만 하고 이기 속에 감추어진 자신의 참된 마음을 열지 못하는 현대인은 결국 이웃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나약한 가치의 혼돈을 경험한다.

이에 거대한 인생의 수레바퀴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상생하여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였다.

정원과 반원 형태들이 결합하면서 형태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여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만들어내고, 거대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약한 개인인 왜소한 토우를 삼입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와 공간을 만들어냈다.

크고 작은 절단된 원들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인해서 또 다른 조형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판 성형을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붓으로 흑유를 바르고 닦아낸 후에 황이라보를 분무 시유 후에 동유를 얹게 분무 시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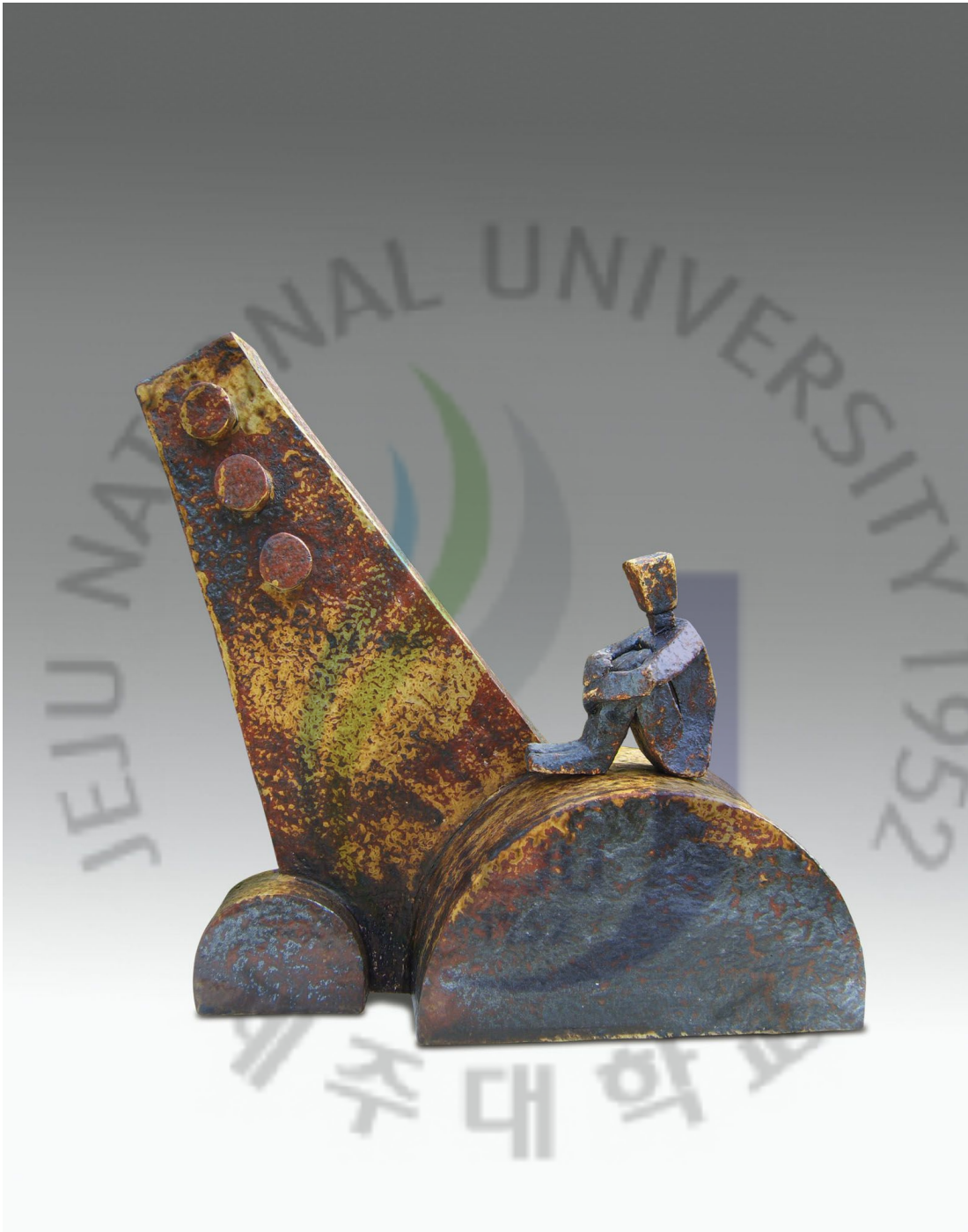
작품Ⅶ 상생 - 어우러짐 / 40cm×38cm×12cm

작품Ⅶ 상생 - 어우러짐

완전한 하나의 상징인 원의 형태를 절단하여 불완전한 현대인의 만남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있을 때의 편안함과 불편함을 표현해 두 마음이 항상 우리들 안에 공존해 있음을 표현했다.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은 중심대칭의 원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간감과 완전함을 느끼게 하며 곡선의 부드러움과 단순성을 보여준다. 시각적으로 단순 간결하게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중심 상단에 정원을 두어 긴장감 속에 서로 공생 공존 하는 어우러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을 하였으며 1차 소성 후 흑유를 상감과 혼합하여 붓으로 칠한 후 닦아내고 얇게 재유를 분무 시유한 후 코발트유로 시유 후에 2차 소성을 하였다.



작품Ⅷ 상생 - 어우러짐 / 33cm×39cm×18cm

작품Ⅷ 상생 - 어우러짐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집으로의 귀가는 즐거운 일이고 누군가가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향하지만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외로움과 공허감이 밀려옴은 어찌할 수 없다. 서로 함께 나누고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주의 옛 대문인 정주석 옆 맷돌 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토우를 접목시켜 인간의 외로움을 작품화시켰다.

크고 작은 원을 반으로 절단하여 하단에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려 하였고, 전체적으로 수직 삼각형 구도로 균형 있으면서 내적으로 무한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항상성(恒常性)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은 정적인 형태이다. 부채꼴 모양의 기둥은 묵시적으로 제주도의 정남을 암시함으로써 대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반원 위에 앉아 있는 토우를 넣음으로써 기다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으로 제작하였으며 1차 소성 후 상감과 철유를 혼합하여 붓으로 칠한 후 사포로 닦아내고, 노랑유를 분무 시유 후 다시 흑유로 분무 시유하였다. 토우는 따로 제작하여 1차 소성 후 흑유를 붓으로 칠하고 닦아낸 후 재유를 분무 시유했으며 2차 소성하여 붙였다.



작품Ⅸ 상생 - 어우리집 / 27cm×37cm×14cm

작품Ⅸ 상생 - 어우러짐

원통형을 절단하여 분리시키고 크고 작게 배열하여 조형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열린 공간으로서 둘레에 정원과 반원의 곡면을 형성함으로써 둥근 절단면의 다양한 변화를 갖게 하였다. 반원의 공간은 도형들이 모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녁이면 집에 모인 가족들의 어우러짐과 단란함을 모색하고자 표현하였다.

여러 형태들이 결합하면서 중심 원형을 향해 있음은 형태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각 형태들이 서로 결합 구성하여 보여주는 형태는 새롭고도 다양한 조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태에 있어서 결합해서 재구성 되는 형태는 새로운 감흥을 유발시키며 지속적인 조형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조합토를 사용하여 판 성형으로 제작하였으며 1차 소성 후 흑유를 붓으로 칠한 후 닦아냈다. 다시 황이라보를 분무시유한 후 재유와 코발트유를 사용하여 가볍게 분무 시유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의 민구류인 맷돌의 형상에서 원의 조형성을 탐구하고, 원의 상징성과 미적 감각을 추출하여 제주인의 내면적 심상과의 통로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제주의 이미지와 부합할 수 있는 원의 조형성 연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원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지는 곡선으로서 완벽한 중심 대칭형이며 순환과 향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원은 영원의 상징이며 화평하고 둥근 이미지 때문에 전체성과 완전성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원의 조형성 연구를 통하여 맷돌의 모티브인 원의 형상을 절단하거나 중첩시키고 또는 병렬시킴으로써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환시켜 재구성하였으며, 그 안에 역경의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제주인의 모습을 토우로 제작하여 놓아 봄으로써 서로 어우러지는 상생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의 풍토에서 파생된 맷돌을 원의 조형성 연구와 접목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원은 가장 간결한 형태이지만 집중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인간의 심미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모든 기하곡선의 주체로서 절단, 중첩, 접근, 분리, 병렬, 통합 등의 상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의 효과를 만들어내며 역동감을 갖게 됨을 알았다.

또한 맷돌이라는 단순한 원통형에서 출발하여 이를 재구성하고 합성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였고,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에서 조형적 소재를 찾아 작품화 할 수 있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흙이라는 재료의 특성과 제약으로 인해 연구자의 심상을 십분 발휘 할 수 없는 제작의 한계성을 느꼈으나 이 연구를 통해 도자조형작업에 대한 기능의 연마와 재료에 대한 연구를 겸하게 된 것을 큰 소득으로 생각하며 향후 소지와 유약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형의 소재로 응용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1.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2.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서울: 미진사, 1980)
3.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2).
4. 유한태, 「입체디자인 원론」, (서울: 미진사, 1984)
5. 김미옥·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2000)
6. Wassily kandinsky, 「점·선·면」, 차봉희 역, (서울: 열화당, 1997)
7. K. 융(1964), 「인간과 상징」, 조승국, (서울: 범조사)
8.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5.
9.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10.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濟州研究叢書2)
11. '제주의 민속Ⅳ - 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문화자료총서(4)」, 제주도, 1996.
12. 2007.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3. 이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Herakleion Archaeological Museum)
14. 아토스 「ATHOS」 성모의 동산(The Garden of The Virgin)

<연구논문>

1. 손미경, 「원(圓)을 통한 만남의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 이 언, 「원(圓)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 박민선, 「원통 변형을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나용태, 「원의 조형성을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4.
5. 한덕진(韓德鎭), 「원(圓)의 형태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6. 손미경, 「원(圓)을 통한 만남의 형상화(形象化)」,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7. 허도옥, 「윤회적 상징성으로 접근한 장례식장 실내공간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8. 이혁진, 「원(圓)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